

‘수(水)문화’ 개념에 기초한 항구도시 워터프런트 공간의 문화론적 이해 -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나 영*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Reading Culturally the Waterfront Space in the Port-City on the basis of ‘Water Culture’ -The case of the Waterfront in Busan-

Na-Young Kim*

*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최근 들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도시 워터프런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水)문화 개념에 입각하여 항구도시 워터프런트를 문화론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본 논문은 안과 밖을 허물고 경계를 희석시키는 물의 속성에 기반하여 바다의 역동성과 집합성, 개방성 속성에 기초하여 워터프런트가 가진 속성을 밝혔다. 그리하여 항구도시 워터프런트가 지닌 경계성, 개방성, 혼종성, 통로적 성격이라는 문화론적 속성이 도시 거주민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산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항구도시 워터프런트와 거주민들의 문화정체성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항구도시 워터프런트 개발의 방향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핵심용어 : 수(水)문화, 도시 워터프런트, 항구도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정체성

Abstract : In the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ttempts to try to understand the urban waterfront in diverse aspects.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basically the port-city's waterfront by the cultural interpretation of it i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Water Culture. Water has the attribute that put down the border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is attribute of water leads to the attributes of Sea, such as dynamism, collectivity, and openness. The perimetric quality, openness, hybridity, and passage quality of the sea-port city's waterfront are resulted from these attributes of water and sea. These cultural attributes of urban waterfront exert a effect upon the residents' cultural identity of sea-port city. Thus the correlation between waterfront's attributes and the cultural identity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ge that its development is planned.

Key words : Water Culture, Urban Waterfront, Sea-Port City, Post-modernism, Cultural Identity

1. 서 론

현대 도시에서 워터프런트(Waterfront)는 도시 경관이나 도시의 면모만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위상이나 정체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대 도시에서 워터프런트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워터프런트가 가진 의미적 관계망의 위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에 맞추어 워터프런트를 개발하여 전체 도시의 어메니티를 완성한다는 시각인 듯하다. 그에 따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워터프런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도시공학적, 건축적 측면에서 공간개념이나 시지각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해 조형적·건축적 도시 디자인을 워터프런트 개발에 반영하고자 했다(문정민, 2002; 김천명, 2003; 김미경, 2007; 남건욱,

2007; 양도식 2007).

하지만 워터프런트에 대한 이해는 건축적, 도시 디자인적 시각에서만 이루어지기에는 얼마간 한계가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세계적인 범위로 퍼진 워터프런트 개발을 선도한 볼티모어의 사례를 분석한 양도식(2006)의 연구는 도시수변공간의 문화적 사용을 위한 도시설계과정을 10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여기서 그는 처음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수변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접근이 용이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단계로 분류한다. 그는 도시 워터프런트에 대한 확고한 공공성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접근성과 개방성을 중요시하면서 수변지역에서 ‘물’과 ‘사용자’간의 물리적, 시각적, 심리적 연결을 극대화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본적이면서 확고한 개념적 기초 위에 설계를 하면서 개발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단계

* 연희원, nykim@hhu.ac.kr 051)410-5272

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양도식, 2006). 이런 워터프런트 개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볼티모어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개발의 목적이든 다른 여타의 목적이든 워터프런트에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서 볼티모어의 성공 사례 이후 오늘날까지 북미, 일본 및 아시아, 유럽 전역에 걸쳐 도시 재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워터프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Huang, Weh-Chin et al, 2011), 흔히 국내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실패 사례의 경우 이런 부문에 대한 초기 접근의 소홀함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Jauhainen, 1995).

이런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워터프런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워터프런트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워터프런트에 대한 문화론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미 워터프런트 개발에 대한 이해과정에서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한 이들이 주로 포스트모던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문화비평가들이었고, 이들은 워터프런트 공간이 가진 문화적 현상 형태와 효과에 주목한 바 있다(마이크 데이비스, 1993; 데이비드 하비, 1994; 손 호머, 2002). 한국에서의 워터프런트 공간에 대한 이해도 다분히 문화적 효과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¹⁾ 이런 점에서 볼 때 좀 더 문화론적 논의에 입각하여 워터프런트를 본격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엇보다 워터프런트란 ‘물(水)’과 인간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감안할 때, 워터프런트에 대한 이해는 ‘물’ 일반에 대한 문화론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수(水)문화’에 대한 논의에 입각하여 워터프런트에 접근하고 이를 도시의 문화정체성 획득에 대한 논의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다만 워터프런트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바다, 도시하천, 호수 등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를 좁히기 위해 항구도시의 워터프런트로, 즉 바다를 면한 워터프런트로 대상을 정하고, 문화정체성과의 관련에 대한 논의는 항구도시 부산에 대한 사례로 좁혀서 보고자 한다.

2. 워터프런트의 이해

2.1 정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워터프런트에 대한 간단한 정의부터 내리도록 하자. 워터프런트에 대한 정의는 이미 수많은 입문서나 연구서, 논문들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의는 横内憲久 외(2000)가 제시한 것으로, 워터프런트를 시민이 도시환경(거주·노동·위락·교통 등 도시활동의 제반 환경)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수제선에 접하는 육역 주변 및 수역을 함께 포함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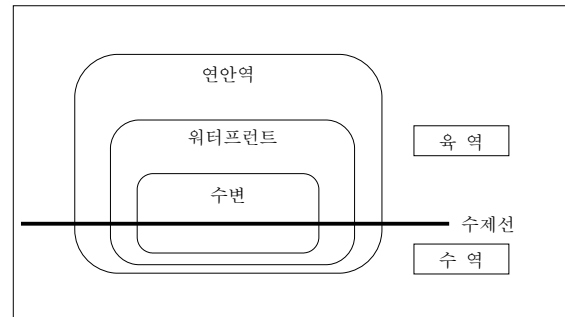


Fig. 1 The definition of Waterfront
출처 : 横内憲久 외(2000)

한편 일본건축학회가 편한 『해양건축용어사전』(2000)에 따르면, 워터프런트의 영역은 그 지역의 지형·토지이용·역사·이용 이력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수제선으로부터 대략 육역측으로 2000m, 해역측으로 300m 정도라고 할 수 있다.²⁾

워터프런트가 가진 성격에 대해서는 ① 개방적인 공간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해방·개방성’, ② 도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성’, ③ 주위로부터의 영향을 줄여 독립적인 공간을 만드는 ‘완결성’, ④ 광대한 공간이나 수역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을 입지시키는 ‘생산성’, ⑤ 해양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레저성’, ⑥ 항구나 공항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교통수단의 ‘다양성’, ⑦ 공간의 크기나 물의 존재가 가져오는 ‘비밀상성’, ⑧ 바다, 바람, 냄새, 빛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간 심성이 연동하여 발생하는 ‘어메니티(amenity)성’, ⑨ 사람이나 물건이 교류하는 창구로서 오래 동안 축적되어 온 ‘문화·역사성’, ⑩ 육역에서 얻기 어려운 환경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개성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어필(appeal)성’을 들 수 있다.(日本沿岸域學會, 2004)

이렇게 정의된 워터프런트는 그 성격에서 이미 상당 부분 워터프런트가 지닌 문화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개방성과 비밀상성, 어메니티성, 문화·역사성, 어필성 같은 성격들은 그 자체가 워터프런트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 차원에서 심화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된 워터프런트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개발되어왔는지를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2.2 전개

워터프런트는 앞서 거론한 1960년대에 시작한 볼티모어 항구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에 북미 전역과 일본을 거쳐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워터프런트 개발 및 재개발 사업이 도시 재생이나 도시 주변공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이양재, 1994; Juanianinen, 1995; 이정록, 1999; 이성호, 신중진, 1999; 문지영, 오덕성, 2007; 이한석, 장만봉, 2007; Huang et al., 2011). 그에 따라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래 워터프런트에 대

한 관심이 증대했고 서울의 청계천 재개발을 필두로 부산 및 인천 같은 각 주요 항구도시의 워터프런트 재개발 사업으로 이어져 왔다(안용대, 2006; 문지영, 오덕성, 2007).

하지만 이런 워터프런트 개발은 단순히 도시공간의 재생이나 재개발적 차원만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정치경제적·문화적 지형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이 등장하는 과정으로 폭넓게 해석되었다. 무엇보다 합리성과 경제성에만 기반을 둔 근대적 생산 활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포디즘의 퇴조와 이에 따른 후기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등장, 전지구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생산의 유기적 연계와 자본 이동의 활성화, 기존의 공간적, 시간적 간격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공간 감각을 불러온 광역 교통통신 수단의 발전,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결과로 일어난 기존 워터프런트의 순생산적 이용의 쇠퇴와 그에 따른 도심 워터프런트의 공동화 현상, 이런 현상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과정에서 도심 워터프런트에 대한 새로운 재생 방식을 통해 나타난 것이 바로 1960년대~1970년대 이후의 워터프런트 재개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ダグラス·M·렌, 1986; Norcliffe et al, 1996; Gospodini, 2006).

그림 2에서 보듯이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진행된 도시 경관의 전개과정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산업화와 산업적 기능에 치중한 항만 개발이 본격화되었던 19세기의 항구도시 워터프런트의 모습에서 두 번째 20세기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틀에 맞추어 합리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둔 정태적 도시 경관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시와 항만 사이에 여러 생산시설이나 고도화한 항만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 생활과 항구의 워터프런트 사이에는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던 것이 20세기에 들어 항구도시의 항만 기능이 생산방식의 고도화와 산업구조의 재편, 화물 운송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면서 일정하게 죽은 공간으로 진행되었다가, 20세기 말부터 그림과 같은 다양화된 디자인의 재개발을 통해 항구 도시의 워터프런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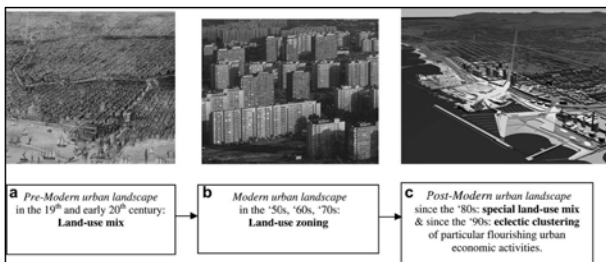


Fig. 2 The evolution of urban landscape

출처: Gospodini(2006)

이런 도시 공간의 변화과정과 워터프런트의 활성화 과정은

문화론적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적 기능과 도시 공간적 형상에 일어난 변화를 정치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일어난 시대적 변화의 현상 형태로 이해하게 되었다(Jameson, 1988; 마이크 데이비스, 1993; 데이비드 하비, 1994; Norcliffe et al, 1996). 여기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록 그 성격에 대한 확정적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전체성과 합리성, 획일성을 기조로 하는 모더니즘적 성향에 대응하여 다양성과 개인주의 그리고 절충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문화적 복합 현상을 지칭한다(정정호, 강내희, 1989;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1992).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이 인간이 사는 터전으로서 공간과 직접 관련된 건축 부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선 이전 시대의 지역 건축 양식의 모방이나 지방 고유 자재의 사용, 개인 소비 생활양식의 추구를 반영한 적극적 자아의식과 독단적 성격을 반영한 구조 등으로 나타났다(Jameson, 1988; Norcliffe et al, 1996; Gospodini, 2006; 정순원, 우신구, 2010).

이는 항구도시의 경우에도 도시와 항만의 관계 변화와 아울러 도시 워터프런트 공간의 다양성과 개성에 입각한 재창조로 나타났고 이런 도시와 항만의 관계 변화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The shift of relation between city and port

	지리적 결합	영향의 방향	워터프런트의 성격
시간 ↓	항구≈도시	항구에서 도시로	생산 성향
	항구≠도시	도시에서 워터프런트로	↓ 소비 성향

출처: Norcliffe et al, (1996)

이상에서 살펴본 워터프런트에 대한 정의와 전개과정은 워터프런트가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나 생산적 공간과는 다르게 좀 더 문화론적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할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해과정의 심화를 통해 보다 나은 워터프런트 개발의 구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항구도시의 워터프런트에 집중하여 그 문화론적 함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3. 워터프런트 공간의 문화적 이해

3.1 수(水)문화

워터프런트는 물과 육지가 만나는 장소이다. 이런 점에서

1) 위에 거론한 논문들 외에 박병주(1992); 이양재(1994); 김영환(2008) 등을 들 수 있다.
2) 워터프런트의 범위에 대해서는 日本沿岸域學會가 편한 『沿岸域環境事典』(2004)에서는 해역측으로 500m로 정하고 있고 위의 横内憲久 외(2000)은 200~500m 정도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워터프런트에 대한 문화론적 이해는 물이 가지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물은 인간의 마음과 연동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물의 이미지는 1) 물 자체에 대한 이미지, 2) 물에 작용하는 물에 대한 이미지, 3) 공간에 작용하는 물에 대한 이미지로 구분된다. 물 자체에 대한 이미지에는 유동하는 것, 수평적인 것, 맑음 같은 물질로서의 물 자체의 개성을 나타내주는 이미지가 있다. 물체에 작용하는 이미지는 엄습해 오는 것,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이다. 공간에 작용하는 물의 이미지란, 공간을 넓히는 이미지, 공간을 분리하는 이미지, 공간을 연결하는 이미지 같은 것을 말한다(鈴木信宏, 1999). 이런 이미지들이 경우에 따라 한 두 가지만 연결되거나 아니면 다수의 이미지들이 모두 연결되어 물과 함께하는 워터프런트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전이되어 워터프런트가 자리하는 도시 전체의 인상이 결정된다. 예컨대 그림 3의 뉴욕 사진을 보자. 흔히 뉴욕은 바다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표현되는데, 이 사진은 9.11 사건 이전에 찍은 것으로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오랫동안 뉴욕의 인상을 결정지은 기본 구도를 갖춘 이 사진은 바다에 비친 저무는 형상과 함께 직선으로 뻗은 마천루와 수평적 바다의 선이 결합하여 뉴욕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규정하고 있다.



Fig. 3 New York

출처: www.meinfoarchiv.de/specials/

물은 이미지만으로 자신이 자리한 곳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이 가진 속성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사물을 비추는 속성이다. 물은 그 자체로 사물을 비추면서 물에 비추어지는 사물이 비치는 사람과 합일하게끔 만든다. 나르시스(Narcissus)의 예에서처럼, 물은 모든 것을 비추어 보이지 않은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본다. 그리고 보인다.’ 비친 자기와 참된 자기는 이렇게 맞물려 서로를 비춥니다. 물에 비친 산 그림자가 산하고 뒤바뀌어 맞물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 자연과 어울리게 됩니다. 강물 앞에 선 나그네는 하늘과 땅의 시선을 느꼈고, 그 시선 속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이 맞물림을 매개하는 것이 물이라는 원소입니다. 비치는 것은 모두 물입니다”(이지훈, 2004).

그리하여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안과 밖과 나와 너라는 분리와 경계가 허물어진다. 안과 밖이 서로 섞여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나 아닌 것들과 뒤섞여 버린다. 그것은 자연과 인공물 사이의 경계가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라져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Fig. 4 Venezia

출처: 손세관(2007)

이런 물의 속성을 도시 공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그림 4의 베네치아이다. 베네치아는 도시 공간이 물과 함께 존재하며 도시 전체가 물에 비추어진다. 베네치아는 언제나 물과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기에 물을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베네치아는 근대적 도시 공간이 가진 기능성의 강조나 폐쇄적인 구조를 근원적으로 탈피하여 언제나 열려 있고 개방적인 도시 공간을 이끌어내고 있다(손세관, 2007).

이렇게 물은 비춤으로써 안과 밖을 없애고 나와 너라는 경계를 없앴으로써 비추어지는 대상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그런 대상들 사이에서 통일성을 지니게 한다. 물은 다양한 외관을 가졌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균일하여 다른 것을 단순화시키는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물의 시학은 통일성을 보증하고 있다”(철학자 G. 바슐라르의 말, 鈴木信宏, 1999).

이상과 같은 물이 가진 문화적 속성들은 물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집단들에 독특한 문화적 양상들을 창출한다. 수문화란 이렇게 물이 가진 문화적 속성이 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그들 자신과 집단들에게 나타나는 문화적 표상형태들을 말한다. 문화라는 것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등 거의 모든 것을 뜻한다면, 수문화는 물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이 그 삶 속에서 획득하는 모든 생활방식과 사유 방식, 표상형태 등을 말할 것이다. 거기에는 단지 가시적인 것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들, 즉 인간이 물로부터 일상적으로 받는 느낌들, 감정들, 이미지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물이 가진 문화적 속성이 위에서 말했듯이 공간 전체를 규정하는 이미지의 발생과 경계의 소멸, 통일성이기에, 물 주위의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문화 역시 다양성과 경계의 소멸, 그리고 통일성의 모습을 띤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다나 강에 취락이나 도시 등을 형성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로 인해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동체 속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다양성이 확보되고, 그들이 어울림으로써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희미해지며, 그런 속에서

도 사람들은 물과 함께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속감과 통일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수문화를 형성하는 물의 문화적 속성은 물의 한 종류인 바다라 해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바다에는 그와 더불어 바다만의 속성이 고유하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바다 주위의 수문화도 얼마간 고유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바다가 가진 물의 속성과 자기 고유의 속성이 어우러져 육지와와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만의 문화적 표현을 자아내는 공간이 워터프런트인 것이다.

3.2 바다와 워터프런트

바다는 물의 속성을 지녔기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공간으로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바다는 인류가 자기 공간 외부로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이용한 외부와의 통로였다(Bentley, 1996). 이런 속성은 인류가 외부와의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항구를 만들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항구가 가진 안과 밖을 나누면서도 결합하는 성격은 바다가 가진 개방적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일본토목학회, 2001).

바다는 나아가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바다는 물의 이미지 중 ‘엄습해오고’, ‘끌어들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흔히 바다의 역동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바솔라르는 바다의 노기(怒氣)로 표현했고(鈴木信宏, 1999), 모더니즘을 대표하면서도 모던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받은 영국의 문인 D.H. 로렌스는 “바다는 모든 것들의/가장 뜨겁고 가장 거칠고 가장 긴박한 피를 담고 있다”고 노래했다(로렌스, 2008). 로렌스의 이 시구에는 바다가 지닌 집합성의 성격 역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뒤섞어 혼합하는 격렬한 요동을 로렌스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다가 지닌 속성은 바다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독특한 수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바다와 육지가 직접 만나고 그 경계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항구도시의 워터프런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미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물의 속성으로 인해 워터프런트는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계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남건옥, 2007). ‘경계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바다와 면한 항구도시의 워터프런트이다. 바다가 지닌 속성이 항구도시의 워터프런트에 영향을 미쳐 바다와 육지의 경계로서의 워터프런트를 분리가 아닌 상호간에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끌게 된다. 그리하여 워터프런트는 경계성을 지니게 되고, ‘경계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혼종성을 드러내게 된다. ‘혼종성(hybridity)’이란 이질적 성격의 요소들이 뒤섞여 새로운 성격의 무엇인가를 창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칸클리니, 2011), 항구도시 자체가 지니는 성격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항구도시의 이런 속성은 경계 공간으로서의 워터프런트를 매개로 해서만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워터프런트의 혼종성이 전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워터프런트 공간에서 바다를 접하는 이들에게 발생하는 인상은 바다와의 합

일이고 그를 통한 모든 것들의 뒤섞임이다. 이를 로렌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그대는 아는가? 섬에 돌진하여 자신을 부수지만/자신은 깨어지지 않고 남는, 그 잔잔하고 위대한 바다를 ... 그 힘이 내 팔을 따라 해안으로 밀려들어/포말 이는 손에서 부쉬지는, 또 그 힘이 하얗게 굴러가는/소금기 밴 두 다리의 파도로 밀려드는/나는 바다다. 나는 바다다!” (로렌스, 2008).

또한 바다에 면한 워터프런트는 이러한 성격 모두를 수반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통로적 성격 역시 지니게 된다. ‘경계 공간’으로서 개방적이며 혼종적인 항구도시의 워터프런트는 안과 밖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도시 공간의 폐쇄성에 밖으로의 열려 있음을 제공하는 통로로서 기능한다(일본토목학회, 2001).

위에서 이야기한 바다와 그에 면한 항구도시 워터프런트의 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곳이 워터프런트 개발을 통해 그 문화적 속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보스턴과 시드니의 모습일 것이다.



Fig. 5 Boston and Sidney
출처: Breen and Digby(1996)

바다가 지니는 문화적 속성과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항구도시 워터프런트의 속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런 문화적 속성들이 항구도시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항구도시의 거주민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서 항구도시라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워터프런트의 속성은 거주민의 문화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제차 강조한 워터프런트 개발에서 확고히 해야 할 공공성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제기된다. 거주민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워터프런트는 그러하기에 공공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워터프런트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는 것이 워터프런트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이다(양도식, 2007).

워터프런트가 지닌 공공성의 측면과 관련하여 새삼 주목되는 것이 도시 워터프런트의 개발이 도시의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 사회적 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일 것이다. 이미 유럽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는 일반화된 사회적 영향평가는 계획된 간섭(planned interventions)(정책,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과 그런 간섭이

불러오는 어떤 사회적 변화과정의 결과들을, 그 결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분석하고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과정들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Sairinen and Kumpulainen, 2006). 자원과 정체성, 사회적 지위, 접근성과 활동, 워터프런트 경험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영향평가는 워터프런트와 거주민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파악하여 워터프런트 개발이 가져온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결과들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핏 보았을 때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개발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실패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고(Jauhianinen, 1995), 워터프런트 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이에 대한 고려를 첨가하여 개발의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Sairinen and Kumpulainen, 2006).

이렇듯 항구도시 워터프런트는 바다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서 그곳 거주민들의 일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주민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워터프런트 개발의 성패 여부가 바로 이런 점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와 개발의 진행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항구도시 워터프런트와 거주민의 문화정체성간의 관계를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4. 워터프런트와 문화정체성: 부산을 중심으로

일정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인식하고 그에 동화하도록 하는 행동, 언어, 문화의 집합으로서 일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바르니에, 2000). 그리고 이런 집단의 정체성은 흔히 문화적으로 표현되기에 문화정체성이라 하고 있다 (라라인, 2010). 인간은 항상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반드시 사회를 구성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의식해야만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정체는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획득된다. 결국 한 인간이 가진 정체성은 언제나 그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이며, 달리 말하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이런 확인은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지닌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문화를 형성한다. 한 사람 또는 집단의 문화정체성은 자기 주위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일상 속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한다면, 인간의 일상은 언제나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따라서 그들이 지닌 문화의 형성에도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주요 구성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이런 일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란 도시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 공간이 가진 일상적 의미부여가 주목된다.

항구도시에 사는 거주민의 문화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런 점에서 그들의 문화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워터프런트를 들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항구도시 워터프런트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서 19세기 말 개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의 성장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하지만 부산은 1990년대 이래 기존 항만의 협소함과 새로운 국제 해운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주요 항만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구 핵심 항만지역(북항)에 대해 워터프런트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박창호, 노홍승, 양위주, 1998; 부산광역시, 2002; 안용대, 2006).

사실 부산은 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은 동해와 남해, 그리고 낙동강으로 둘러싸인 데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48개의 하천을 통해 일상적으로 물을 접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산 사람들은 물을 통해 자연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왔다. 부산의 전통적인 상징체계들(온천, 학, 금어, 동해안 별신굿 등)은 물과 생명을 동일시하고 땅, 하천, 바다를 연속적인 표상체계 속에서 보아왔다(이지훈, 2010). 즉 부산은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통해 문화를 생산하고 자기의 공간을 인식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산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부산이 면하고 있는 바다였다(강영조, 2008). 그렇다면 본래 부산 사람이 가졌던 문화정체성은 물이 가진 문화적 속성에 영향 받아 형성되어, 경계성과 개방성, 혼종성을 요소로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 부산 지역에 왜관이 설치되고 외국인 거리가 형성되고 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부산이 조선 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온 것은 이런 부산이 가진 경계 공간, 개방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부산은 앞서 밝혔듯이 특히 1960년대 이래 한국 고도산업성장 과정에서 수출입 항구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바다와 도시 공간 사이에 각종 철도 및 도로의 교통 시설과 고도로 집중된 항만 시설이 자리하여 도시와 바다와의 문화적 소통이 단절되고 말았다. 이 점에서 부산은 거대한 ‘존재 망각’을 겪고 있으며, 바다와의 접촉이 단절됨으로써 겪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이지훈, 2010). 즉 오래 동안 부산 사람들이 바다와 여러 하천을 중심으로 살아 오면서 형성되었던 문화정체성은 현재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이 단순히 국가의 경제성장에 주로 기여하는 경제적 기능의 항구도시를 넘어서 부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단절된 수 문화에 기초한 문화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부산 사람들이 현재 바다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주요 해수욕장을 통해서이다. 물론 그 외에도 최근 개발된 영도 연안 지역의 ‘절영산책로’나 ‘이기대 산책로’ 같은 바다와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다와 만나는 곳은 해운대와 광안리 같은 해수욕장이 될 것이다. 이런 공간에서 부산 사람들은 바다가 가진 속성을 느끼고 자기 존재감을 획득하지만,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이 지닌

오락성과 번잡성은 부산 사람이 가지는 정체성에 해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해운대와 광안리 같은 해수욕장이 워터프런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은 밤의 야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6 Nightscape of Haewoondae and Gwanganri
출처: tour.busan.go.kr/kor & www.kkami.net/toy

이 사진들에서 보이듯이 해운대와 광안리의 야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빨려들게 할 듯이 아름답다. 수면에 비친 육역의 광경이 마치 동화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할 정도이다. 이런 공간을 바라 볼 수 있고,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커다란 소속감과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면 속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화려한 조명들이 오락시설과接客시설에 치중되어 있고, 공공성의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된 공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산의 해수욕장이 항구도시 부산의 거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보다 중요한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여러 워터프런트 환경을 이용한 전체적인 어메니티 공간의 형성일 것이다(김승환, 2001). 나아가 이 중에서도 부산이 항구로서 기능하며 그 결과로 형성된 도심 워터프런트가 가지는 역할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부산 사람들이 스스로 부산에 대해 가지는 큰 부분은 항구일 수밖에 없고 이를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정체와 직접 연결해서 보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2006; 부산발전연구원, 2007). 그런 점에서 부산 사람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해 구도심 항만의 워터프런트 재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인데, 따라서 이런 재개발 과정은 반드시 문화정체성 형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의 워터프런트 개발에서도 누차 강조한 공공성 관념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런 공공성 관념의 내용은 부산 사람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성 위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점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의 워터프런트 개발의 구체적인 실현과정은 경계성과 개방성이라는 부산이 과거 지녔던 고유의 특성³⁾을 지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부산 사람들의 문화정체성을 재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은 시 차원이나 여러 기초단체 차원에서, 또는 자발적인 여러 문화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문화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진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들만이 아니라 온천천변에 위치한 여러 자치단체의 온천천 개발사업, 영도다리 주변 지역 및 영도 연안 지역을 문화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혼합된 복합영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들, 더 나아가 거가대교에서 광안대교를 잇는 대규모 토목사업 등이 모두 단순한 기능적·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효과를 고려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시행 초부터 일정하게 문화적 고려를 염두에 넣고서 시행되고 있기에 이미 얼마간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부산 시민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사업들이 완료된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용실태와 이용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이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업들이 현재 수준에서도 부산 시민에게 일정한 문화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음도 틀림없다. 온천천 환경정비사업이 가져온 문화적 영향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온천천 주변 주민들은 온천천 환경정비에서 커다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2004-2005년 온천천변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하지만 이런 사업이 문화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부산이 가진 경계성과 개방성의 특성이 이곳에서 발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특성이 보다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개발 계획과 실제 지역 현실의 전개 과정상에 일정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고, 시민에게 주는 문화적 효과도 미미하다(2010년-2011년 차이나타운 일대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 확인). 개방성과 경계성, 혼종성을 문화정체성의 요소로 회복할 수 있는 지역 현실에 입각한 공공성 개념이 이 경우에는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에서 워터프런트에 대한 문화론적 이해를 위해 ‘수문화’ 일반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하여 바다에 대한 문화적 속성의 이해, 그리고 나아가 항구도시 워터프런트에 대한 문화적 속성의 이해까지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런 속성을 가진 항구도시 워터프런트와 그것이 자리한 항구도시의 거주민들이 지니게 될 문화정체성의 관계도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면 대략 이러하다.

3) 이런 특성을 지니고 워터프런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을 “부산성(性)의 건축”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김소연, 2008). 하지만 이런 개방성과 경계성이라는 특성은 항구도시의 공통된 특성일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이 부산이란 공간에서 어떻게 특수하게 구현되는가는 좀 더 면밀한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물은 그 자체로 사물을 비추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그 대상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비치는 대상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하는 속성을 지닌다. 사물을 비추는 속성은 바로 물이 가진 경계를 허무는 작용을 대변한다. 비춤으로써 안과 밖을 허물어뜨리는 물의 속성은 워터프런트가 지나는 ‘경계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물이 가진 속성 자체만으로도 이미 워터프런트가 도시적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를 얼마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나아가 물의 일부인 바다는 물의 속성과 함께 역동성과 집합성, 개방성이라는 보다 규모가 크고 광역적인 문화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동적으로 요동치며 모든 것이 스며드는 바다의 모습은 바다가 가지는 가장 강렬한 문화적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바다의 속성은 바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문화적 영향을 미쳐 바다사람들의 기본 속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셋째, 이런 속성을 가지는 바다가 육역과, 특히 도시와 만나는 공간이 워터프런트이다. 워터프런트는 그 자체 바다와 도시의 ‘경계 공간’을 형성하여, 안과 밖, 나와 너라는 구분과 경계를 희석시키고 허무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워터프런트에서는 경계성, 개방성, 혼종성, 통로적 성격이라는 문화적 속성이 드러난다.

넷째, 이런 항구도시 워터프런트가 가지는 속성들은 항구도시에 그대로 투영되어 항구도시의 속성으로 전이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의 거주민들의 문화정체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항구도시 워터프런트 개발은 그 거주민들의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한 속에서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워터프런트 개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성 관념의 실현을 담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그 항구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전후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기본 계획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상 이렇게 요약된 물과 바다, 워터프런트 그리고 도시의 문화정체성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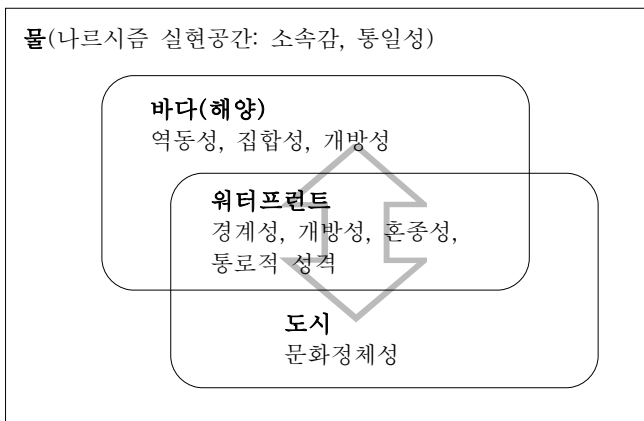


Fig. 7 Correlation between Waterfront and Cultural Identity

후 기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진흥 방안 인문학국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 -361-B00001).

참 고 문 헌

- [1] 강영조 지음, 이희섭 사진(2008), 부산은 항구다: 항구도시 부산의 미학적 재발견, 동녘.
- [2] 김미경(2007), 유형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워터프런트의 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학 석사논문.
- [3] 김소연(2008), “부산학 담론으로 본 부산성(釜山性)의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8호, pp. 67-74.
- [4] 김승환(2001), 부산도시환경론: 도시와 조경, 동아대출판부.
- [5] 김영환(2008), “수변공간 문화재생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해외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8호, pp. 207-216.
- [6] 김천명(2003), 시지각적 이론에 의한 워터프런트 공간의 특성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건축공학 석사논문.
- [7] 남건욱(2007), 경계공간으로서의 워터프런트에 대한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 석사논문.
- [8] 네스토르 G. 칸클린 지음, 이성훈 옮김(2011), 혼종문화, 그린비.
- [9] 데이비드 H. 로렌스(2008), 제대로 된 혁명, 아우라.
- [10] 데이비드 하비 지음, 구도회 외 옮김(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동녘.
- [11] 鈴木信宏 지음, 유방현 옮김(1999), 水空間의 演出, 기문당.
- [12] 마이크 데이비스(1993), “도시 르네상스와 포스트모더니즘 정신”,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pp. 216-232.
- [13] 문정민(2002), “도심 수변공간 개발의 의미와 디자인방향”, 조선대 조형미술연구소지, 제2권, 제1호, pp. 41-67.
- [14] 문지영, 오덕성(2007), “도시공간 속 수변개발(Waterfront)을 토한 도시재생의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7권 제1호, pp. 639-642.
- [15] 박병주(1992), “수변과 도시”, 대한건축학회지, 제36권 제2호, pp. 40-46.
- [16] 박승규(2009), 일상의 지리학 -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 [17] 박창호, 노홍승, 양위주(1998), 부산광역시 해양 워터프런트의 개발 및 보전, 부산발전연구원.
- [18] 부산광역시(2002), 해양수도 21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 [19]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2006), 자료로 본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
- [20] 부산발전연구원(2007), 부산광역시의 문화도시화전략을

- 위한 방향과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 [2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원(2005), 부산학 시론, 부산발전연구원.
- [22] 손세관(2007), 베네치아 - 동서가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 열화당.
- [23] 손 호머 지음, 이택광 옮김(2002), 프레드릭 제임슨 - 맑스주의, 해석학,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과학사.
- [24] 안용대(2006), “북항재개발, 부산재창조의 기회로”, 건축과 사회, 제5권, pp. 46-56.
- [25] 양도식(2006), “포스트모던 도시수변공간의 문화적 사용을 위한 도시설계과정분석-볼티모어 항구 문화 도시수변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3호, pp. 65-86.
- [26] 양도식(2007), “문화공간으로서 도시수변공간의 성공을 결정짓는 5가지 도시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찰”,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1호, pp. 85-105.
- [27] 에드워드 소자 지음, 이무용 외 옮김(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 [28] 이성호, 신중진(1999), “일본의 수변공간(Waterfront)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제2호, pp. 739-744.
- [29] 이양재(1994), “도시와 워터프런트개발”, 도시·지역개발연구소지, 도시계획논문집, 제1권, pp. 87-107.
- [30] 이정록(1999), “미국 도시의 워터프런트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제2호, pp. 151-177.
- [31] 이지훈(2004), 예술과 연금술, 창비.
- [32] 이지훈(2010), “물의 도시, 부산”, 부산문화재단, 아쿠아시티 부산, pp. 7-19.
- [33] 이한석, 장만봉(2007), 세계 해양도시의 친수공간,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34] 일본건축학회편, 이한석 외 옮김(2000), 海洋建築用語辭典, 기문당.
- [35] 일본토목학회 편, 배현미 외 옮김(2001), 워터프런트의 경관설계, 보문당.
- [36]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음, 이현복 옮김(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 [37] 장 피에르 바르니에 지음, 주형일 옮김(2000), 문화의 세계화, 한울.
- [38] 정순원, 우신구(2010), “탈산업시대 소프트 워터프런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5호, pp. 71-80.
- [39] 정정호, 강내희 편(1989), 포스트모더니즘론, 터.
- [40] 호르헤 라라인 지음, 김범춘 외 옮김(2010), 이데올로기와 문화정체성, 모티브북.
- [41] 横内憲久 외 편저, 이한석 외 옮김(2000), 워터프런트계획, 도서출판 이집.
- [42] ダグラス・M・レン 著, 横内憲久 監譯(1986), 都市のウォータ-フロント開發, 鹿島出版會.
- [43] 日本沿岸域學會(2004), 沿岸域環境事典, 共立出版.
- [44] Bentley, J.H.(1996), “Cross-Cultural Interaction and Periodization in World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1, pp. 749-770.
- [45] Breen, Ann and Rigby, Dick(1996), The New Waterfront: A Worldwide Urban Success Story, Thames & Hudson.
- [46] Gospodini, Aspa(2006), “Portraying, classifying and understanding the emerging landscapes in the post-industrial city”, Cities, Vol. 23, No. 5, pp. 311-330.
- [47] Huang, Wen-Chih et al.(2011), “The concept of diverse developments in port cities”, Ocean & Coastal Management, Vol. 30, pp. 1-10.
- [48] Jameson, Frederic(1988), “Architecture and the Critique of the Ideology”, The Ideologies of Theory; Essays 1971-1986, Vol. 2, pp. 35-60.
- [49] Jauhainen, Jussi S.(1995), “Waterfront Redevelopment and Urban Policy: The Case of Barcelona, Cardiff and Genoa”,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3, No. 1, pp. 3-23.
- [50] Norcliffe, Glen et al.(1996), “The emergence of postmodernism on the urban waterfront”,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4, No. 2, pp. 123-134.
- [51] Sairinen, Rauno and Kumpulainen, Satu(2006), “Assessing social impacts in urban Waterfront regener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 26, pp. 120-135.
- [52] Wylson, Anthony(1986), Aquitecture: Architecture and Water, The Architectural Press.

원고접수일 : 2011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 2011년 6월 26일
 원고채택일 : 2011년 6월 27일